

부산 현대문학의 큰 흐름

김 중 하
(부산대 교수)

目 次

- I. 글을 시작하면서
- II. 부산문단, 그 지역성 문제
- III. 부산문단의 현대문학 시기문제
- IV. 부산문학의 기초
- V. 부산문학의 명맥잇기
- VI. 부산소설의 현실 대응적 담론
- VII. 서정시의 확장과 현실의식
- VIII. 희곡 문학의 전개
- IX 비평문학의 활동
- X 남은 말

I. 글을 시작하면서

부산지역의 문학사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의 현대문학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또 지역성 문제 때문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논리 없는 기술은 더욱 피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부산 지역 문학의 큰 흐름을 잡고 그 특수성과 변별적 자질을 파악하기 위한 개관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은 개별 작가의 창작 활동이나 문학적 성과의 평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 문학의 바탕이 되는 문학적 태도와 그러한 정신을 일깨운 중심적 역할을 한 기둥으로서의 작가를 파악하고 그 문학 정신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를 큰 흐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과 변전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등장하는 작가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들의 지향을 수렴하는 큰 맥을 잡아 시, 소설, 희곡, 비평 등의 분야별로 추론할 것이다.

II. 부산문단. 그 지역성 문제

오늘날의 부산문단은,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고 또 광역시로 바뀌면서 그 지역범위가 넓어지고 인구 500만의 거대도시가 되면서 문학인구가 무려 600여명이 넘었을 정도로 탄탄한 바탕 위에서 있다고 하겠지만 신문학 초창기에는 영성하기 짝이 없었다.

먼저 부산의 지역자체가 항구도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근대도시로의 모습은 일제치하에서 갖추어 나가게 되었고 신문학기에는 문학적 풍토가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가까운 도시 충무에서 1926년 「참새」가, 진주에서는 1928년 「신어단」이란 동인지가 발간되면서 부산보다 먼저 근대

문학인을 배출하고 있다. 1935년 유치환이 중심이 되어 「생리(生理)」라는 동인지가 발간된 것이 부산을 근거로 한 문학인의 처음 출현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부산문단의 지역성은 단순한 지리적·지정학적인 구분에서 생각하기보다 문학적 풍토와 문학인의 유입이 가능했던 인접지역으로까지 확대하거나 포함시켜야 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해방 전에는 충무·진주·마산 등의 서부경남지역까지를 포함한 경남권이 부산문단이 되고, 그것이 1963년 직할시 승격 이후 비로소 지금의 수준으로 한정된다고 하겠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의 부산문단의 인맥을 살펴보았을 때 부산토막이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접도시로부터 들어와 부산을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부산문단의 지역성은 그러므로 부산을 삶의 근거지로 삼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보아야 하고, 지정학적 구분에 한정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부산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버린 작가들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인데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들이 적어도 부산에 거주하는 동안에 활동했던 부분만큼은 부산에서 거둔 수확으로 보아, 부산문학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다.

Ⅲ. 부산문단의 현대문학 시기문제

불과 백여년의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현대문학사를 분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현대문학의 시기설정에는 이론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개념 설정조차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편의상 우리나라의 문학사에는 <1930년대>라는 막연하고 불분명

한 구분을 하고 있다.

모더니즘 시운동부터 보거나 모더니즘 소설의 출현으로 현대문학이 시작되었다고 볼 때 그것은 대체로 1935년 전후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문학사에서의 통설을 인정한다면 부산문학도 1935년 전후로 보아야 하겠고 또 그것은 수긍할 만한 근거가 있다.

청마 유치환이 1935년 「생리」동인지를 발간하고 1936년 요산 김정환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사하촌(寺下村)〉으로 등단한 시기가 거의 같고, 이것은 공식적인 부산문단의 기초다지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후 부산문단의 기동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부산 문학은 그러므로 영성했던 근대문학 시기보다는 바로 현대문학 시기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전에 향파 이주홍이 1925년에 동화 〈뱀새끼의 무도〉를 「신소년」에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였고, 192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가난한 사랑〉이 다시 당선되어 명맥을 잇기는 했지만 문단으로서 집단적 성격을 띠기엔 역부족이었다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작품활동과 일관된 문학관, 그리고 이후 부산문학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데 끼친 영향 등으로 보았을 때 향파 이주홍, 청마 유치환, 요산 김정환이 정립한 이후에 라야 부산문학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V. 부산문학의 기초

부산문학의 특징적 성향과 독자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몇몇 작가의 활동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부산 작가들의 숫자나 활동이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서울중심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1935년 전후로 보아서 부산문학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산문학의 태동을 말하기 위해서는 또 한국문학사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1935년 전후한 시기를 부산문학의 현대문학 시기로 파악할 때 문학 담당층 작가는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시인으로서의 청마 유치환과 함께 「생리」의 동인으로 활동했던 염주용(廉周用)과 김기섭·유치상·정성수·최두춘·최상규 등과 손풍산·장응두·박영포·김상옥·김수돈, 1940년 「문장」으로 등단한 지하련을 들 수 있다. 이들 시인들의 시적 경향이나 시인으로서 지속적인 창작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문학사적 맥락과 자리매김을 위한 작품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 이후 연속성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들 시인들 가운데서 부산문학의 틀을 짜는데 중히 언급해야 할 시인들은 두 세 사람밖에 없는 셈이다.

유치환·김상옥·김수돈 이 세 시인이 부산문단의 시적 명맥을 이어나 작가로 보여진다. 김상옥은 시조 시인으로서 그의 독특한 향토적 정서와 현대시조 형식의 정착에 끼친 영향은 문학사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업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부산문학의 독자성을 말할 때, 특히 부산문학의 기초를 이루고 그 명맥이 오늘에 이르는 한 경향을 말할 때는 그 비중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김수돈 역시 시인으로서 업적과 시적 성과로는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작가임에는 틀림없지만 부산문학의 기초라는 관점에서는 영향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에는 미약한 점이 있다. 그리고 보면 유치환밖에 남는 시인이 없다.

소설은 이보다 더 영성하여 향파 이주홍·요산 김정한·김말봉을 빼고는 특별히 언급해야 할 작가가 없을 정도다.

김말봉은 <밀림(密林)>을 1935년 동아일보에 연재할 만큼 당대 작가로서의 역량이나 활동은 높이 사야할 작가임에는 틀림없지만 그의 작품세계가 1930년대 <대중소설론>의 논리에 입각했다고 할 정도의 작품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문학의 1930년대 중심에 놓여 있던

모더니즘계열 소설도 아니란 점에서, 또 신문연재 소설이 갖는 통속성의 문제에서 부산문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주홍의 이 시기 작품활동은 해방이후의 것에 비하면 미미했고, 작품적 성과 또한 이 시기의 것들이 그의 문학세계 전반의 것에서 뒤지고 있다는 점과 또 부산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정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이긴 하지만 부산문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을 보아서는 결코 소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산문학의 기초는 시에서 유치환, 소설에서 이주홍·김정환 이렇게 세 작가에 의해 터뒀겨졌고 그 바탕에서 시작한다고 하겠다.

V. 부산문학의 명맥 잇기

암울했던 일제말기를 거쳐 해방공간으로 이어지는 부산문학은 많은 작가들의 출현과 창작활동으로 한국문학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융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주의 설창수가 중심이 된「영남문학」에는 유치환·조항·이윤수·조지훈·손동인·김동사·김달진 등의 시인들이 운집하였고, 이형기가 1949년 「문예」를 통해 가세하고 이후 노영란·김춘수·천세욱·고두동·김태홍·이경순·박노석·박영한·이영도 등의 참여로 가히 전국적 규모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소설쪽은 1946년 시인으로 등단했던 오영수가 1949년 「신천지」에 〈남이와 옛장수〉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 전환한 이외에는 이렇다할 작가의 출현이 없었다.

이 시기, 해방공간은 한국문학사에서 이데올로기 논쟁시기로 규정하고 작품들도 이들 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산문단은 이 더센 회오리의 외곽지대에 있었고, 지역 문학인들의 인간적 유대가 첨예한 대립을 낳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학의 순수성이 지켜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6·25로 시작되는 1950년대 임시수도 시절의 부산문학은 바로 한국문학이고 환도 이후라고 해도 50년대 후기 한국문학의 자리잡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따로 부산문학을 이야기할 수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혼란과 궁핍의 시기, 전쟁의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 급선무였던 시기, 그러므로 중군작가단에 소속되었던 작가나 문학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던 작가들이 더 많았던 때의 문학은 현실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 와중에서도 천상병·장세호·이종택·조순·손동인 등의 시인들이 나왔고 오영수는 〈머루〉를 발표하여 부산문단의 터를 닦고 있었다.

1953년 환도이후, 임시수도 시절의 문학적 분위기와 생존을 위협받는 속에서도 문학을 놓지 못하는 문학인들의 열정에 영향받은 많은 젊은 시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윤일주·박재호·박철석·이동섭·김민부·정공채·조영서·김규태·허만하·구자운·강춘장·이유경·한찬식·박태문·임수생·서림환·구연식·송경하 등의 시인들과 윤정규·김학 등의 소설가들이 앞다투어 등단한다.

이러한 많은 부산 문학인들의 등장과, 피난 문학인들의 환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산문단의 새로운 각오와 지역문학에의 열정은 〈문충부산지부〉, 〈부산문필가협회〉, 〈부산아동문학회〉 등의 발족·결성을 촉구시켰고 부산문학의 장을 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진정한 부산의 문학, 지역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인들의 창작활동과 작품들의 집합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이 변별적 성격을 갖게 되는 부산문학은 이렇게 1950년대 말기에 와서야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국내 정세는 엄청난 변혁을 맞게 되고 그래서 부산문학의 새 장은 열리게 된다. 4·19, 5·16으로 이어지는 정

치변혁과 문학환경의 변화, 이제 지역문학의 힘이 생기게 된 부산문학은 현실대응적 문학전략을 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비록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학의 흐름에 비해 주변부 문학으로밖에 대접받지 못했던 부산문학이라 하더라도 1960년대 부산문학은 결코 문학사에서 가벼이 볼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문학의 새로운 주류를 탄생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충격은 부산문학이 일구어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군부정권의 정체가 구체화되고 경제개발을 앞세운 독재정치가 도를 더해가던 1966년 일제말기부터 여러 사정으로 절필하고 있었던 요산 김정환의 문단복귀 선언과 <모래톱 이야기>의 발표는 이후 한국문학에서 사실주의의 부활을 위한 신호탄이었고 부산문학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역사성을 띤다.

시에서 청마 유치환, 소설에는 향파 이주홍 두 기둥으로만 버티오던 부산문학은 요산 김정환의 문단복귀로 솔밭처럼 든든히 서면서 그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된다. 유치환의 생명파적 시적 경향과 이주홍의 서정적 사실주의, 김정환의 비판적 사실주의 이 세 기둥은 부산문학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그 바탕이 되었고 이후 등단한 대부분의 문학인들은 원로 세분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양왕용 · 장승재 · 김태휘 · 박응석 · 신명석 · 이수익 · 임명수 · 임종찬 · 이상개 · 김석규 · 김인환 · 김영준 · 김철 등의 시인들과 최해군 · 윤진상 · 정종수 · 홍삼출 등 소설가의 등장으로 부산문단은 활기를 띠었고 드물게 이유식 · 김종출의 비평계의 등단은 강단비평을 현장비평으로 옮겨놓는 계기가 되었다.

유신개헌 이후 1970년대도 이어서 많은 시인들과 소설가들이 등장하게 된다. 유병근 · 김성식 · 박지열 · 김남환 · 정진채 · 배달순 · 이달희 · 황양미 · 박윤기 · 원광 · 정대현 · 강남주 · 방청룡 · 이승하 · 하현식 · 박송죽 · 정해송 · 최우림 등의 시인과 이규정 · 강인수 · 천금성 등의 소설가

와 비평가로 김천혜가 등장한다.

1970년대 말기에 이르러는 이렇게 식구가 붙어난 부산문학계에 시동인지 「목마」, 시조동인지 『뱀씨』가 나오고 시전문지 「남부의 시」와 「남부문학」, 「오늘의 문학」등의 문학지가 창간되는 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문학인의 결속과 문학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의 집결로 부산 문단의 자생력을 입증했다.

둘째, 서울 중심의 문학적 흐름에서 벗어나 부산지역의 독자성 확보를 시도했다.

셋째, 부산문단이 주체가 되어 문학인을 양성하고 인정하는 관례를 만들었다.

넷째, 부산 지역문학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자극제 역할을 했다.

다섯째, 부산 문학비평계가 강단비평에서 현장비평, 실천비평으로 자리잡기 위한 터다지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말기는 부산문단에서 특기할 수상이 있었다. 1976 김정한은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1979년 이주홍은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받는다. 이 두 원로의 수상은 지금까지 서울 중심의 문학, 그리고 큰 상은 서울에 있는 문학인들에게만 나누어지던 관례를 깨뜨린 사건이다. 어떤 점에서 1970년대 한국문학의 중심은 부산에 놓여 있었다는 또 다른 반증이 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러한 부산 문학인의 자긍과 노력이 그대로 1980년대로 이어지면서 어려웠던 시기에 오히려 문학은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문학이 문학만의 아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키워주는 토양을 그대로 반영하고 나아가 어려운 시대의 예언자적, 선구자적 기질을 다할 수 있게 펼쳐진다.

1980년대는 박태일·강영환·최정빈·오정환·정영길·김종복·이정주·

박관용 등 시인과 성병오·조갑상·김광수·이린·김일지·정태규·이석호 등 소설가, 비평가로는 남송우·정영자 등이 등장한다.

1980년 부산문단은 이러한 개별적인 작가들의 활동도 활발한 것이었지만 그보다 주목해야 할 일은 지역 문학인들의 각성과 이에 따른 문학 풍토의 변화다.

이미 1970년대 지역문학들의 결속과 저변확보 그리고 지역문학의 특성을 살리려 했던 노력들이 1980년대 들면서 동인지 발간과 무크지 발간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발간된 시동인지 「열릴 시」는 〈삶의 새로운 양식을 찾아서〉를 목표로 80년대의 시인 강영환·박태일·엄국현·이운택·강유정 등이 제 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지향이 아니라 점에서 특이하다. 이어 「시와 자유」에 김석규·김영준·박응석·박태문·이해웅·임수생 등 탄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진들이 모여 동인지를 발간하였고, 「지금-여기의 시」로 출발하여 「시와 인간」으로 이름을 바꾼 동인들은 〈새로운 시에로의 실험정신〉을 표방하고 현실성과 현장성을 중시하고 시에서의 사실주의적 경향을 연다. 양왕용·유병근·진경옥·박청룡·하현식·김성춘 등이 낸 「절대시」가 비교적 보수적 경향을 보이는데 비한다면 「영점오구구」는 시인으로서 인정받는 추천과정을 아예 무시하고 물질주의, 권위주의, 실물주의에 대한 저항과 기성 문학계에조차 거부 의 몸짓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선언하고 나선 박종욱·김개·김진생·김혜태·김호생·박미숙·박철순·손운선·정순자·함영숙 등이 만든 동인지다.

이에 비하면 소설계는 개별적 작품활동을 위주로 하다가 1982년 〈부산소설가협회〉를 결성한다. 이 협회의 결성은 단순히 소설가들의 모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들은 서울의 실천문학가협회와 궤를 같이하고 김정환의 사실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문학적 실천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이다. 이들이 주체가 되어 1984년에

는 <요산문학상>을 탄생시켰고 1985년대는 <5·7문학협의회>를 만들었으며, 「토박이」, 「문학과 실천」 등의 무크지를 발간하면서 현실대응적 거대담론들을 토해내었다. 이 두 무크지는 그 생명이 길 수 없는 운명을 처음부터 타고 났다. 그것은 부산 소설계의 정신적 바탕으로서의 요산 김정환의 사실주의 정신에 투철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또한 1980년대의 부정한 현실을 그대로 단순히 반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부와 저항적 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열악한 부산의 정세에서 계속 발간이, 여러 면에서 밀려드는 힘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러나 김정환·이주홍 두 원로의 1970년대 말 큰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부산지역의 문단은 새로운 힘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개의 문학상을 만들었다. 이것은 문학적 업적을 서울에서 평가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부산에서 평가하여 상을 주겠다는, 달리 말하면 서울 문학인들의 무기력을 질타하는 의미도 없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요산 문학상>의 제정은 한국문단에 신선한 충격이었고 <향파아동문학상>역시 그러했다. 이 두 상은 비록 그 주체가 부산 문학인이고 부산서 시상하는 것이라 해도 전국적 권위를 인정받는 큰 상으로 자리잡았다. 이것은 1980년대 부산문단의 큰 업적이요, 부산 문학계의 지위를 더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해강아동문학상>, <성파시조문학상> 등이 잇달아 제정되면서 서울의 문학상을 올려다 보는 부산 문학계가 아니라 전국을 내려다 보는 부산문학계로 자리를 높였다.

이러한 문학계의 활동은 지역 문화인들의 의식을 일깨워 순수한 부산 지역 문화지로 「부산문화」가 발간되었고, 이것이 「동녘」으로 개명하여 월간지로 이어졌다. 또 <목요학술회>에서는 「목요문화」를 발간하여 부산 지역 문화를 살찌우고 부산시민 의식을 고양시키는 큰 역할을 해 주었다.

1990년대의 부산문학계는 백화쟁명의 시대다.

1990년 302명에 불과하던 부산의 문학인 수가 1997년 현재 비교적 소수였던 소설계에 15명의 신인들이 등장하였고 시인은 100여명이나 불어나 600여명이나 되게 된 양적 팽창은 말할 것도 없고, 문학이 문학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문화시민들이 공유하는 문화라는 점, 그리고 시민 의식이 그만큼 문학에의 열망으로 상승되었다는 좋은 의미가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고수되어 온 소위 추천제도라는 것도 서울의 몇몇 잡지로 한정되어 있는 통로가 지역잡지나 문학단체들의 기관지 등에 의해 넓혀지고, 어떤 의미로는 추천제 자체가 이제 무의미할 정도로 출판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도 부산 문학인들이 급격히 불어나게 된 이유가 될 것이다.

문학전문지 「오늘의 문예미령」 「시와 사상」을 비롯하여 종합문예지 「문학의 세」 「문학지평」 「문학도시」 「문예시대」 등의 발간은 부산문단이 확고해졌고 충실해졌다는 증거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문학활동이 비교적 동인적 성격이 강한 면이 있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자유분방한 분위기와 문민시대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구속적 성격을 가진 단체보다는 개별적 활동을 더 선호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나 싶다.

특히 최근 급격히, 급속히 보급되는 PC에 의한 출판, 글쓰기는 피를 말리는 원고지 메우기에 비해 훨씬 수월해졌고, 포스터모더니즘의 경향 유입으로 창작방법이 다양해진 데다가 경계 무너뜨리기, 형식 깨뜨리기, 정격 없애기 등의 글쓰기 방법과 하이퍼 문학, 사이버 문학의 출현은 누구나 쉽게 문학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린셈이 된다.

또 80년대의 무거운 주제,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경직성에서 벗어난 90년대 풍토는 문학을 보다 가볍게 만든 원인이 되었고 하였고, 섬세함, 내면의 침잠 등의 글쓰기가 강한 체험의 뒷받침이 없이도 창작이 가능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시에 있어서 신서정의 출현은 복고적

서정시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것은 복고라는 이름의 미숙한 서정조차도 용납하는 안이한 정신자세까지 낳게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정태규·구영도·옥태권·박관용·김종찬·정우련·정혜경·김미혜·박영애·장세진·이상민·강동수·박명호·조명숙·박향자 등 90년대의 소설가들은 90년대식 글쓰기를 하고 있지만 그 토양은 사실주의 입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실주의가 경직된 80년의 것이 아니라 더 열리고 자유로워진, 그래서 이주홍의, 한 발 물러선 모성지향적 성격을 더 많이 띠게 되었고, 아무것에도 겁매이지 않는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신세대의 문학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인들은 그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김광자·김형술·송유미·문선영·이근대·전기웅·박윤규·전성욱·김선희·박정애·서규정 등이 높은 문학적 성취도를 보여주는 주목받는 시인들이고,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선부른 평가를 할 수 없는 신인들이 많다. 그러나 100여 명이 넘게 등단한 시인들 중에는 복고적 서정성, 덜 다듬어진 서정성에 머물러 있어서 각고의 정진이 있어야 할 시인들도 많다.

90년대의 문학은 문학인의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것이다. 독자들은 현명하다. 잘 익은 것과 설익은 것을 독자들은 너무 잘 가려낼 줄 안다. 문학인의 인구가 늘 것은,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중에 설익은 문학인이 있어 부산문학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도 21세기를 준비하는 오늘 1990년대 말에 부산 문학계가 풀어야 할 과제다.

VI. 부산소설의 현실대응적 담론

부산 소설계의 대부는 요산 김정환과 향파 이주홍이다. 이 두 작가는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지만 이보다 오히려 근원적으로 같은 점에서 부산

소설의 어떤 경향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주홍은 다재다능해서 소설뿐 아니라 아동문학, 희곡, 중국 고전의 번역 등에서도 일가견을 보여주며 서화는 더욱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의 소설은 대체로 현실적 문제를 직접 다루는 쪽이기보다 외돌려 언급하는, 또는 한 발 물러서 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격렬하거나 정공법을 쓰지 않는다. 현실적 문제를 다루되 그것의 원인이나 해답을 찾기보다는 사실 자체의 거론이 갖는 정확성, 그리고 소재로 취급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는 전경화기법을 쓰고 있다. 그것은 작가의 판단이나 가치평가 이전의 상태, 아직은 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제, 소외당하고 있는 것의 조명, 잊혀져가는 것의 애정, 잃어버리기 쉬운 작은 것의 애착, 그리고 놓쳐 버려서는 안될 것들에 대한 관심을 주로 보여준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서정적이고 정감에 바탕하고 있는 모성지향적 성격을 지닌 것들이라 말할 수 있고, 갈등을 갈등으로 처리하고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직접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화해와 감싸안음, 이해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 찾기가라고도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작가적 태도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적 현실속에서는 소극적 접근 방법으로 치부되거나 역사의식과 해결의지의 결핍 등으로 오해받기 쉬운 면도 있지만 결코 그러하지는 않다. 그는 현실로부터 거리두기의 방법으로 걱정을 다스리고 그로써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서, 독단적 판단이나 선부른 단정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문제의 문제됨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자는 진지성과 섬세함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의 소설 속에는 심한 대립·갈등의 극적 요소보다는 보여주기에 따르는 잔잔한 풍경이 있고 다성적(多聲的)이며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여 해답을 구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비한다면 김정환은 드러내기와 꾸짖기, 극적 대립과 갈등, 가치 판단에 따른 행동, 직접 대응하기로 현실문제를 다룬다. 문단에 처음 등

단할 때부터 그의 경향은 비판적 사실주의를 표방한 분명한 노선을 보여 주었고, 문단복귀 역시 이러한 태도를 재천명하고 실천에 옮기는 행동으로서 문학을 표방한다. 현실문제의 원인을 캐고, 그 책임을 물으며, 격렬한 대응에 의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며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주홍이 문제의 발견 차원이라면 김정환은 발견된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더 사실적이고, 그것은 우리 현대사의 성격에 아주 맞아 떨어지는 작가적 태도가 된다. 일제치하에서는 민족주의적 비판적 사실주의가 되고 분단복귀 이후에는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 산업화 사회로의 이행에서 발견되는 불합리와 정치적 부패를 고발하고 질타함으로써 문학의 대사회적 발언을 강화하고 문학의 사회비판적 역할을 고조시키는 단성적이다. 그러한 그의 태도는 강한 역사의식과 해결의지를 직접적으로 표명·행동했다는 점에서 1960년대 말기부터의 비판적 사실주의를 부활시키고 1970년대, 1980년대 한국 문학의 주류를 형성시키고 이끌어간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소설계 두 대부의 이러한 경향은 부산 소설계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지배하는 영향을 끼쳤다. 비교적 이주홍의 경향에 가까이 가는 작가로는 최해군·조갑상·성병오, 그리고 이후 1990년대 문학적 경향,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한 걸음 물러서기, 생활주변의 작은 것에 관심 가지기, 경험의 파편 추스르기, 내면적 성찰과 존재론적 인간학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진 신진 작가들에게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부산 소설계의 새로운 방향이요, 개척하고 계승하여 꽃피워야 할 한 과제로 아직 남아 있다.

이에 비하면, 김정환의 경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리에 윤정규·이규정·윤진상·강인수·정태규 등의 중진작가들이 놓인다. 이들의 작품은 빠르게는 1950년대 말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70년대, 80년대로 그대로 이어져 나온다. 그들은 사실주의 정신에 투철하였고, 이 정신의 실천적

행동이 바로 작품활동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두 대부의 영향은 현실대응적 담론 방법이 달라 보일 뿐 기실은 같은 뿌리며 같은 태도로서 담론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다 함께 거시적 담론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같다. 결국 부산의 소설계는 사실주의 정신이 바탕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현실대응적 태도나 소재의 선택들이 거의가 현실 속에 묻혀 있는 진실을 찾고, 현실 사회가 안고 있는 불합리를 깨쳐 진정하고 올바르게 발전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VII. 서정시의 확장과 현실의식

부산 시 세계는 유치환으로부터 비롯된다. 청마의 생명파적 경향, 그것은 시대상황에 대응하여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시적 전략에 다르다. 생명의 구경적 긍정과 생명을 부정하는 모든 세력에 과감히 응전하려는 시적 전략은 달리 표현하자면 현실대응적 담론이라 할 수도 있다. 일제치하의 탄압과 궁핍에 응전하고, 6·25의 전쟁상황에 대응하며 이승만 독재 정권으로 인한 부조리해진 사회현실에 맞서는 일은 그것이 따로 어떤 이데올로기적 발상이 아니라 존귀한 생명의 보존과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선택된 시적 전략이라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시작되는 그의 시들은 때로는 관념적 표현과 격정적 정서가 서술적 형식으로 풀러지기도 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그러한 외형적인 것에 있지는 않다.

서정시가 단순한 정서의 발로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대상에 대한 정감·친화의 단계를 벗어난 차원에 이르렀을 때, 또 그것이 담론적 성격을

떠게 될 때, 서정성은 다소 과격해지거나 거칠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유치환의 시세계는 서정시가 갖는 서정성과 담론적 차원의 걱정이 적절히 어우러져 있어 겉으로는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유치환의 시 세계는 후진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 깊은 서정성에 기대고 그것의 심화를 지향으로 삼은 사람은 서정적인 세계로, 담론적 성격을 지향으로 삼은 사람은 대응적 전략으로서의 발언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 세계가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치환이 죽고 그리고 1970년대의 산업화 사회로의 이행이 빛은 그들이 사회전반에 드리워질 때 부산의 시적 경향은 아주 다른 구 개의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 현실로부터 일탈 내지는 무관심으로 보이는 서정시 세계와 현실 대응적 논리성이 강조되는 저항시 또는 참여시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어떤 의미로든 문학이 사회와의 관계를 끊어 버릴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 요구가 드세고 억압된 욕구의 발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본다면 1970, 80년대 서정시가 배경으로 물러났고 참여시적 경향의 우세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문민정부의 탄생과 상황의 변화는, 싸워야 할 적이 없어졌거나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정시의 부활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들의 시 세계가 전경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서정시 세계는 결코 현실로부터 완전히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현실적 대응자세가 여리고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 그들의 정서는 현실로부터 온 것이었고 그래서 밝고 활기찬 것이 되지 못하고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 무기력, 자조적, 퇴영적 성격이었다.

교과서적 서정시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는 그 서정시 또한 현실 대응의 소극적 표현이었다는 점과 유치환의 생명파적 성격을 이어 오고

있었음에 비롯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서정시는 서정성의 확장과 현실적 조응이라는 두 축의 조화로운 결합에서 시작되고 또 그러한 부산시 세계의 특징은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VIII. 희곡 문학의 전개

부산의 희곡 문학은 이주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에서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는 이주홍의 <청춘기(1947)>로부터 <호반의 집(1948)>, <탈선 춘향전(1949)>, <대차(1949)>, <낙랑공주(1949)>, <낙성의 달(1950)>, <나비의 풍속(1950)>, <호동왕자(1953)>, <구원의 곡(1954)>, <청춘궤도(1954)>, <신부추방』(1955)>에 이르기까지 10여 편의 창작 희곡이 있었고 이것이 학생극, 주로 고등학교 학생극 형식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1947년~1959년의 학생극 20여 편 중에서 이주홍의 작품이 아닌 것은 3편에 불과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극의 경우에도 염주용의 <민족의 태양>, <동래성 함락의 날>이 있고 박영아의 <유격대장>이 있지만 그 이외는 전부가 이주홍의 작품이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대학극 운동과 함께 최해군의 <종말>, 강하영의 <길목>이 발표되고 김석호·정영태·이병구·김관봉·이병선·서국영 등이 한두 편의 희곡을 쓰지만 단발적 성격의 것이었다. 1970년대에도 김차용, 김숙현, 정숙영, 최시현 등의 작가가 등장하지만 큰 활동은 없어 보이고 1980년대 들어오면서 김문홍·이운택·이현대·신태범·하창길·전동수·천재동·박원돈·김현국·김경화 등 희곡 전문작가의 출현과 함께 활발한 작품발표와 연극운동이 일어났다.

1980년대는 연극의 활성화에 따라 부산 희곡 문학의 중흥기라 할 만큼 작품도 많았지만, 이것은 대체로 연극운동적 차원이 강했기 때문에 80년대의 문학 일반의 경향이었던 현실비판적 성격이나 마당극적 양식을 많이 띠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희곡 문학의 문학으로서의 독립성보다 연극성에 더 가깝게 하므로서 희곡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없지 않았다.

이런 중에서도 김문홍·이운택·하창길 등은 희곡의 문학적 완성도와 문학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작품을 썼고 그것은 연극으로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1990년도는 희곡 작가의 양적 증가에 못지 않게 문학적 지위도 굳건히 하는 시기다.

이것은 부산의 양대 신문 「국제신문」, 「부산일보」의 신춘문예작품 모집에 희곡 부분이 들어 있었고 80년대 연극운동이 일반화되면서 연극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80년대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에다 90년대 이창복·권남희·하정애·이동재·이은정·김익현·김승일·이영식 등의 등장은 괄목할 만한 사실이고 또 이들의 창작활동 역시 기대된다.

부산 희곡 문학이 1980년대에 중흥기를 맞는다는 것은 희곡 역시 현실대응적 담론을 큰 몫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더구나 무대 위에서 보여 주는 문학, 서술이 아닌 행동을 수반한 문학이란 점에서, 어려운 시대에 문학의 선구자적 역할과 현실 참여 자세를 가장 직접적으로 쉽게 보여 줄 수 있는 희곡 문학은 1980년대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한 희곡 문학을 부산에 심고 가꾼 작가가 이주홍이란 점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부산 소설계의 기둥이기도 했지만 부산 희곡 문학의 초석을 놓고 가꾼 작가로서의 이주홍의 역할은 특히 강조되어야 하고 또 그의 문학정신이

사실주의에 있었다는 점은 부산 희곡 발전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연극의 상업주의화, 이에 편승하려는 희곡 작품들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또 연극의 놀이성이 강조되면서 지나치게 가벼워진 바가 있지만, 이주홍으로부터 시작하여 김문홍·이윤택·하창길의 80년대로 이어지고 이창복·이은정·김익현 등의 90년대로 계승되는 부산 희곡 문학의 정신과 주류는 〈사실주의 정신〉이며 그것의 확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IX. 비평문학의 활동

부산의 비평계가 짝을 보인 것은 1961년 이유식이 현대문학지에 〈현대적 시인형〉, 〈프로메테우스적 인간상〉으로 등단하면서다. 이보다 앞서 고석규가 시비평을 시작하긴 했지만 1958년 요절했기 때문에 명맥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유식의 등단과 1964년 김종출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역자일의 문학-이상의 소설〉로 평론부문에 당선, 등단하면서 강단 비평이 현장비평으로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적어도 부산의 비평계라 이름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은 1970년대 대학의 팽창과 함께 문학강의 교수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1977년 김천혜가 중앙일보의 신춘문예에 평론이 당선되어 평단에 나서면서 강단비평이 강화되고 그것에 촉발된 젊은 비평 지망생들이 배출되면서 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1980년대 무크지 운동이나 동인지 운동이 창작위주가 아니라 비평 위주로 이루어지게 된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 또 부산 비평계의 활발한 활동을 반증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의 국문학과 교수들이 늘어나고 또 문학비평

지방 대학원생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비평이론을 실천에 옮기는 작업이 1980년대 활발해진다. 또 다른 이유로는 1970년대에 시작되었던 사실주의 문학운동과 여기서 발전한 민중문학운동, 민족문학운동 등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로 문학이론 서적을 탐독하게 되었고 또 그것의 실천적 작업이 문학이론 또는 문학비평 지면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무크지가 발간되어 나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평」, 「전망」이다.

1983년 「지평」의 창간은 <지방문학의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목적의식을 뚜렷이 하고 남송우·민병욱·김성인·김문홍·김광수·박청룡·신태범·오정환·이린·이운택·이정우·최화수 등이 모여 나오게 된 것인데, 비평전문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평을 전공한 남송우·민병욱·구모룡 등이 중심이었고 비평활동이 다른 창작분야와 대등한 입장에 세계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어 1984년에 「전망」이 발간된 것은, 1980년대 문학론의 큰 흐름이었던 변증법적 지역문학운동을 지향하게 된 「지평」에서 지방주의 지역문학운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평」에서 떨어져 나온 남송우·민병욱·박남훈·황국명·정태규·정영태·하창길 등에 의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평」은 1980년대의 문학운동의 큰 흐름을 따르는 쪽이었고 「전망」은 이보다 문학의 지역적 지위향상, 부산지역 문학의 차별화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3세대>의 문학운동은 모든 창작분야의 젊은 힘을 한 곳으로 집결시키는 동기가 되었고 「지평」, 「전망」은 결코 적대적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보완적, 선의의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무크지가 오랫동안 발간되었고 그것이 부산비평계를 든든히 하고 확실히 뿌리 내리게 했다.

1990년대 들어 비평계는 국문학과와 외국문학 전공 석사들의 대량 배출과 그들의 활동무대로서의 전문적 비평지의 필요성에서 앞서 있었던

「지평」, 「전망」을 주도하던 평론, 비평을 전공한 구모룡·김경복·남송우·이상금·정해조·정형철·황국명·황순재 등이 동인형식으로 모여 「오늘의 문예비평」을 창간하게 된다. 이 잡지는 단순한 무크지가 아니고 정기적인 계간지로 정식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비평작업을 시작했다. 비록 부산지역에서 발간되는 계간지라 하더라도 거기 실리는 글들은 부산 비평가의 글들만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젊은 비평가들의 글들을 실어 부산의 협소한 지역성을 탈피하여 전국적인 유명 비평전문지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서울의 비평계에서 비평전문지가 지금까지 발간된 것이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 불과 두세 권의 발간으로 끝나 버리는 단명성을 면치 못하는데 비해 오늘의 문예비평」은 8년을 한결같이 거르지 않고 발행했다. 한 호 한 호가 문예사조에 대한 재점검, 비평이론의 정립 등 비평의 바탕을 다지고 점검하는 특집으로 이루어져 있어 잡지라기보다는 전문서적에 가까운 알찬 내용들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비평의 영역은 고전적인 비평론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관심이 집중되는 비평방법에 대한 검토와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비평의 길을 열어 가고 있다. 또 미래의 비전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오늘의 사이버 시대에 걸맞는 문제인 사이버 픽션이나 하이퍼픽션이론에 대한 소개와 적용 그리고 검증 등은 서울의 비평계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바다.

「오늘의 문예비평」은 지금까지 창작 중심의 문단에서, 어떤 면에서는 창작가들이 백안시해 왔던 비평이 창작 못지 않은 문학의 큰 장르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나아가 한국의 창작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정립,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갖추게 되었다. 부산 문학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뿌리내리고 힘을 모아 전국적으로 가장 확실한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로서 부산 비평계는 분명 전망이 밝고 든든하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그리고 희생적으로 이 계간지를

이끌어 나가는 부산의 <제3세대> 비평가 동인들의 노력과 부산 문학계에 끼친 영향 그리고 그 업적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X. 남은 말

부산문학의 큰 흐름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실주의 정신>이다.

문학의 본질적인 면에서 그리할 수밖에 없다고도 보겠지만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적 정치·사회여건이 문학을 그 스스로 문학답게 자라도록 놓아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주의 정신>은 강조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부산 문단의 출발에 해당되는 요산 김정환, 향파 이주홍, 청마 유치환, 이 세 사람의 문학정신이 결코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점에서 부산문학의 맥은 <사실주의 정신>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다소간 맛이 다르고, 형식이 다르고, 말하기 방법이 다르긴 했지만 큰 흐름은 문학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존중의 정신에 터잡고 있다.

특히 부산문학계가 그 결속력과 세를 과시하는 1950년대 후반에서부터 격동의 역사의 소용돌이는 4·19, 5·16, 유신, 6·29를 거쳐 문민정부가 서기까지 문학의 현실 대응적 자세를 요구해 왔고 부산문학은 그래서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이제 1990년대에 접어들어 문학이 자유로운 여건에 놓이면서 부산문학은 재탄생을 위한 산고를 격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와중에서 다소간의 혼란스러움과 옥석이 뒤섞이는 착오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부산문학인들의 저력과 역사성은 이를 극복해 낼 것이고 그래서 21세기를 밝게 맞이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술이 무척 추상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느 한 시각에 의한 단정적 선언보다는 부산 문학의 큰 흐름을 잡고 그

특징을 맥으로 잡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필, 아동문학 등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은 필자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바가 있어 그러했다.

이 글에서의 미비한 점이나 잘못이 있다면 이는 순전히 필자의 불비에서 온 것이다. 이 글은 1991년 발간된 「부산시사」 제4권 제2장 제1편 문학을 저본으로 하여 1990년대를 더 첨가한 것임을 밝혀 전거로 삼으며, 특히 회곡 문학에 관한 것은 김문홍의 〈부산 창작회곡 50년사〉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